

안동공무원노조 “전공노 안공노 선택 방해 말라”

전공노 집행부 지부 의견 무시
일방적 의사결정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따른 일제 반발 화 불러

상급단체를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 등을 재차 촉구했다.

안공노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안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한 안동법원의 1심 선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는 안공노가 선택한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안공노 조합원들 투표로 노조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끝까지 안공노 조합원을 무시하고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주노총, 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나, 그동안 지부 의견은 무시하고 전공노 간부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만 일삼은 행태가 노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고 반문했다.

안공노는 “전공노는 스스로가 새로운 기득권이 돼 영향력을 휘두르며 억압과 불의를 낳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전공노는 명분만을 위해 무모한 소송

을 진행해 박으로 모은 조합비를 낭비하지 말고 조합원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라”고 질타했다.

안공노는 “정부는 더 이상 소수노조를 탄압하는 거대 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한 방관을 멈추고,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소수노조가 대정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의 공정과정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안공노 전신인 전공노 경북본부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성·반대 투표를 했다.

전공노 집행부의 지부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따른 반발이다.

당시 전체 조합원 중 부재자를 제외한 조합원 1124명 중 74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의 84%인 623명이 찬성하면서 결국 전공노 탈퇴가 결정돼 현재의 독자노조를 설립했다.

전공노는 안공노의 탈퇴를 위한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탈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안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조미경 기자**



사진은 소통책임관이 SNS 홍보를 위해 레일바이크, 청도천변 유채꽃밭에서 직접 촬영한 모습(사진=청도군제공)

청도군 공직자 “청도 홍보는 우리가 책임”

SNS 소통책임관 53명 지정
청도 생생한 소식 직접 전해

청도군은 군정 소식과 행사 등 군민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정보들을 신속 친근하게 전달하는 ‘SNS 소통책임관’을 운영한다.

군은 각 부서 업무와 군정 현황에 대해

잘 알고 SNS 사용이 익숙한 공직자 53명을 선발, 이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군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통책임관은 각 부서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에 필요한 내용들을 개인 SNS에 게시하거나 타계시물을 공유한다.

청도군 SNS에 올리는 홍보 영상을 기획

하거나 직접 출연도 해 참신함을 선보인다. 연말까지 우수 활동을 한 3명의 소통책임관에게는 인센티브로 청도사랑상품권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알리는 게 핵심이자, 요즘 트렌드”라며, “매력 넘치는 청도를 대표해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북교육청, AI 디지털 교육 늘린다

강영석, 통합 신청사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최선 다해

경북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장애 학생들이 미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디지털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 장애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올해 장애 학생을 위한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 1개교, 디지털 온(溫) 선도 특수학교 3개교, AI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1개교를 운영한다.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에는 경희학교(경주)가 선정됐다.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경희학교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온(溫) 선도학교 등 다년에 걸친 디지털 관련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교원과 학생의 AI 활용에 대한 높은 진숙도를 가진 특수학교로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장애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I 교육 선도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과 기기 보급의 확대에 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

AI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교와 교사의 AI 활용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AI-SW 교사 동아리 운영, 지역과 민간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드론·로봇 등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AI 가상 현실 체험행사 운영 등의 활동을 1년간 진행하게 된다.

디지털 온(溫) 선도 특수학교에는 구미 해당학교, 상회학교(상주), 경희학교(경주) 등 3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디지털 온(溫) 선도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 교육 데이터 수집·분석에 기반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활동 사례와 효과적인 수업 전략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선도학교로 선정된 3교는 AI 코스웨어, 에듀테크를 활용해 장애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

경희학교(경주)는 AI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돼 특수교육 국경 AI 디지털 교과서(초등 3~4학년군 국어과) 개발에 따른 현장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 있는 교과서 개발과 특수교사의 디지털 활용 수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 오전 포항에 있는 포항용산초·초등학교 등 2024학년도 신설학교 현장을 방문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9일 오후 회가림둔지에서 열리는 '2024 달빛이래 운동교실 개강식'에 참석한다.

보수 변호사 단체, 부적절한 수입 논란 박은정 남편 징계 청원

“불법 다단계 사건 수입료 22억...
검찰서 처리한 사건 수입 의혹도”

보수 변호사 단체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52·사법연수원 29기)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55·28기)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다단계·가상화폐 전문’ 등 전과를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에서 22억 원의 수입료를 받아 변호사법·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 등을 수입했다는 의혹 제기”라며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국혁신당 7호 영입인사인 박은정 전 부검정사.

한변은 “헌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전과를 내세우거나 변호사법상 수입 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거나 과다수입·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종(이재명·

조국)심판특별위원회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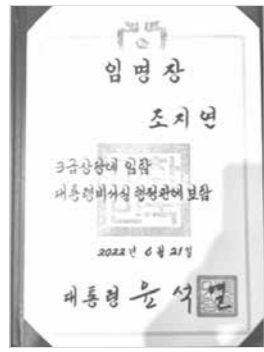
이 변호사가 수입했던 ‘시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 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시스템 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며 받은 수입료만 2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선관위, 경산 조지연 공보물 '3급 행정관' 사실 아님 결정

국힘 조지연 "문제 없음 확인했다" 최경환 후보 측 "즉각적 조치하라"



경북도선관위는 경산시 선거구 국민 의힘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일 무소속 최경환 선대위 측이 조 후보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전날 "3급 행정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각 후보 측에 통지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제상 3~5급 상당으로 임명하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급을 '상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3급 행정관, 4급 행정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자 상식에 부합하는 호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단순한 관례와 상식의 문제마저 '허위사실 유포'로 호도하는 특정 후보의 정치 공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사 사례를 가

진 타지역 공직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선관위 위원회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경산시 선거구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관련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5장씩 붙이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추가로 1매씩 공고문을 첨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후보자의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 경력에 대해 사실이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경북도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 기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어 '3급 상당'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3급'으로 단정해 기재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이와 관련 이날 경산시 선관위를 방문해 '조지연 후보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경환 후보 캠프 최영조 선대위원장은 "사전 투표 기간 경산시 유권자 약 6만명이 투표를 마쳤는데 이분들은 허위 경력을 보고 투표를 해 소중한 주권 행사를 침해당했다"며 "조지연 후보는 허위 경력 관련 28만 경산시민께 직접 해명하고,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은 기자



동구·군위갑 신효철, 머슴복 입고 머리에는 '1번 동구머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캠프의 발걸음도 더욱 분주해지는 가운데 다양하고 이색적인 선거 방식들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동구·군위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효철 후보는 선거구내 시장과 골목을 돌아다니며 큰

절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머슴복을 입고 머리에 '1번 동구머슴'이라는 띠를 두르고 새겨진 안팎을 테니 일종마이 시켜 주이소라는 친근한 구호를 외치는 등 일명 '머슴 유세'로 동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낮은 자세로 의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효철 후보는 "선거는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좀 더 진정성이 있으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선거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불쾌감 없이 후보의 진정성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한 생각을 풀어냈다. 조미경 기자

캐스팅보터 2030 투표에 승패 달렸다

3명 중 1명 무당층... 막판 변수로

2030을 중심으로 무당층이 증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을 향한 청년 공약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다. 반면 5060을 향한 여야의 구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에 정치권에선 5060을 위한 공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결국 2030에서 선거 승패가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청년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각종 공약에 선행 조건이 붙을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평이 나온다.

배경엔 단순 유권자 수지반 아니라 최근 총선 과정에서 이는 막판 논란, 지난 대선에 이어 '심판' 선거 등 다양한 요인이 자리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18세~29세의 무당층 비율은 38%, 30대의 무당층 비율은 29%를 기록했다.

반면 40대 무당층 비율은 12%, 50대 무당층 비율은 11%, 60대 무당층 비율은 11%, 70대 이상 무당층 비율은 6%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30세대 3명 중 1명꼴이 무당층으로 조사되면서 결국 이들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초박빙 지역으로 꼽히는 50여 개 선거구의 승패가 이들 손에 갈릴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60대 이상이 보수, 4050이 진보 성향을 가진 데 비해 2030은 선거마다 선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분석가는 "2030의 막판 표심이 전체 선거, 특히 격전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030 남성의 경우 보수 우세, 여성의 경우 진보 우세의 흐름이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예천·안동 주말 집중유세 총력

"시·군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

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사진) 후보는 총선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7일 예천과 안동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해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겠다"며 "예천·도청신도시 도약의 완성을 꼭 이뤄내겠다"고 예천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예천에서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오전 11시 안



국민의힘 김형동

군의원들도 함께했다.

김형동 후보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한다"며 "부족한 자를 이렇게

동 신시장으로 이동하여, 안동 장남을 맞아 신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안동 유세현장에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천

안동시민·예천군민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4월 10일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한번 선택을 받는다면 우리 안동시민·예천군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형동 후보는 "안동·예천이 도청소재지 용도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안동·예천의 희망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명주 기자

정희용 "다부동 전투는 패전 아니다"

백선엽 장군 폼페이 김준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철곡·성주·고령 정희용(사진) 후보는 "6·25 전쟁의 다부동 전투는 패전이라고 막달하며 백선엽 장군까지 폼페이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8일 주장했다.

정 후보는 "다부동 전투는 경기 수월정 김준혁 후보가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출연해 낙동강 방어



국민의힘 정희용

선을 지켜낸 다부동 전투를 패전으로 평가하며,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백선엽 장군의 업적까지 폼페이하는 저질 망언을 쏟아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지층을 겨냥해 역사를 제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비상식적인 역

사 인식을 보여준 김준혁 후보에게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 후보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후보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는 전쟁의 전세를 바꾸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낸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

정 의원은 "김준혁도 않은 어디서 주위들은 저러시 수준의 이야기를 천박하고 무책임하게 내뿜는 김준혁 후보는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i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埠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남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세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아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대구119특수구조대, 지진 도시탐색 구조훈련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구조대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 대비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지난 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건물 잔해에 매몰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와 구조대원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단장비를 활용한

도시탐색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화 작업 △고립 인명구조 훈련 등 실제 현장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김정희 119특수대응단장은 "붕괴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숙달된 전문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K신공항 민간참여자 공모에 총 47개사 의향서 제출

시평 20위 내 대형건설사 10곳 100위 내 건설사 16개사 참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관건"

대구가 지난달 25일부터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및 민간참여 공모' 공고를 통해 시작한 사업참여의향서를 지난 5일까지 접수했다.

접수 결과 기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예상되었던 굴지의 10개 건설업체를 포함해 총 47개사 의향서를 접수해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 기부대양 사업의 추진에 가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대구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참여 계획서(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1개사 이상 컨소시엄 내 포함돼 있다면,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가 가능하다.

향후 대구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확대해 산업은행 PF 전문가와 대구은행 금융실무자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실무협의체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구는 지난달 5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및 8대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47개 건설사 등의 사업참여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신공항 건설 SPC 구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관건이다"며 "SPC 구성의 마지막 관문인 공모를 통한 민간참여자 구성에도 총력을 다해 대구 미래 100년의 변명을 약속하는 새로운 하늘길을 조기에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2만8천여명 역대 최대 참가 대구마라톤대회 성료

루티 아가 소라, 대회 신기록 경신 엘리트 남자는 스테픈 키프롭 우승

대구스타디움에서 정장급 엘리트 선수들과 마라톤 동호인 등 2만 8천여 명이 참가한 2024 대구 마라톤대회가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권위의 마라톤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대회 우승상금을 인상해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초청했고, 코스도 대구 전역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대회였다.

국제 엘리트 부문 남자 우승은 케냐의 스테픈 키프롭 선수가 2시간 7분 4초로 완주해 1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획득했다.

국제 여자부 우승은 에티오피아의 루티 아가 소라 선수가 2시간 21분 7초로 차지했으며, 2위 양젤라 제메순테 타누이 선수가 2시간 21분 32초를 기록해 대구마라톤대회 기록인 2시간 21분 56초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남자부는 대구시청 소속의 이동진 선수가 2시간 18분 4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는 K-watet 소속의 정다은 선수가 2시간 34분 31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마스터즈 부문은 폴코스가 7년 만에 부활해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대구 이외 지역에서 온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46%를 차지하는 등 대구마라톤에 대한 인지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타지에서 온 참가자들은 대구 시내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코스로 변경돼 수성못 등 대구 곳곳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다. 또 출발지로 변경된 대구스타디움은 KBS 생방송을 통해 육상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AI 복지상담' 2차 시범사업 선정

대구 수성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2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은 단전, 단수,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 19개 기관에서 입수한 45종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대화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가구의 위기·육구 상황을 파악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가 초기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심층 상담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능요류 확인 및 개선, 상담사나리오와 업무절차 고도화 등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지자체와 발굴주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화기반 대화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인력 부족으로 복지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성구는 조사 범위 확대와 대상자 심층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초기상담 도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공공분야에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선제 도입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굴 건수, 사업추진 실적, 인구특성 등을 고려해 수성구를 비롯한 20개 지자체를 2차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조미경 기자

마음공감 심리상담실 통해 공직분위기 개선

동구청, 직원 대상 운영 호응 높아

대구 동구청은 지난 22년 12월부터 동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음공감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공감 심리상담실은 심리상담 전문 직원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 및 집단 대면 심리상담부터, 심리검사 해석까지 다양하다.

개인 심리상담은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심리정서, 자기이해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집단 상담은 신규 공무원 적응 프로그램, MBTI 단체 해석 등으로 진행된다.

이중 특히 MBTI 단체 해석이 인기가 많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상담을 한다. MBTI 검사를 토대로



다른 직원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할 수 있어 매년 신청 인원이 많다. 지난해에는 452건, 올해는 74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누적 인원은 약 300명에 이른다.

대구 동구는 앞으로 MBTI 뿐만 아니라 직원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계획이다. 조미경 기자

달천예술창작공간 입주작가 프리뷰전 '시나브로'展 개최

달천문화재단은 2024 달천예술창작공간 제4기 입주작가 6인을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프리뷰전 '시나브로'를 오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제4기 입주작가인 신건우, 원예찬, 이향희, 장동욱, 조현수, 현수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설치와 평면 등 작가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말로서 이번 전시가 낯설고 새로운 작업 환경을 맞이하는 예술가들의 기대감과 더불어 불안함이 어우러진 복잡한 감정을 도화선 삼아 침전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각예술로 발현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28일 오픈링 행사에는 피아니스트 최훈락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트리오의 따뜻한 선율과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무대를 열며, 경쾌한 리듬과 다양한 변주를 담은 트루바 이제즈 밴드의 메인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6명의 입주작가의 작업 과정을 소개하고 작업론에 대해 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오픈스튜디오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프리뷰전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발달 장애인 음악 콘서트 초대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는 2024 수성아트피아 상주단체 시리즈 공연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오는 17일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별 콘서트를 개최,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프로그램을 해설과 함께 선보이며 교육적인 부분과 예술 감상성 개발에 기여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콘서트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1악장(Op. 67), 슈트라우스의 비엔나 왈츠 메들리 등 음악교과과정에 나오는 음악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대중적이고 친숙한 음악을 선보인다.

조미경 기자

대구미술관 소장품기획전 '회화적 지도 읽기'

대구미술관은 오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소장품 중 약 78%에 이르는 회화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소장품 기획전 '회화적 지도 읽기(Map Reading of Painting)'를 개최한다.

8일 대구미술관에 따르면 2024 소장품기획전인 회화적 지도 읽기는 대구미술관의 회화 소장품 중 대중에게 많이 소개하지 않은 또는 소개한 적 없는 보석 같은 작품을 알리고 이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연구해 소장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시에서는 곽훈, 김종복, 송창, 신경철, 안지산, 윤명로, 이강소, 임동식, 조난단, 기드너, 최민화, 힐러리 페시스 등 작가 44명의 작품 82점을 △상상의 지형학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캔버스 너머의 방위각 △축척된 현대적 삶의 지표들 등의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첫 번째 섹션 '상상의 지형학'에서는 과거부터 회화의 주된 대상이었던 자연을 담은 회화를 선보인다. 두 번째 섹션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에서는 추상회화 작품을 소개한다. 20세기 서구현대

미술의 주축을 이뤘던 추상미술은 대상의 구체적 묘사를 기피하고 작가의 의지에 의한 추상적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이어 소개하는 세 번째 섹션 '캔버스 너머의 방위각'은 점-선-면을 활용한 기하학적 추상회화 작품들로 구성된다.

마지막 섹션 '축척된 현대적 삶의 지표들'에서는 조금 더 현실로 내려와 다양하게 '축척된' 현대적 삶의 지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해원 학예연구사는 "방대한 지표들이 총집합한 지도를 독해하며 길을 찾듯, 대구미술관 회화 소장품들이 각자 품고 있는 독자적인 시각과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미술관이 걸어온 작품 수집의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중 도슨트, 참여 이벤트, 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람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이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미술관 홈페이지(daeguartmuseu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미경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4월 9일 화요일 4



대구도시개발공사, 주택 100호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매입을 접수하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대상사업은 정부 및

주택도시보증기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올해 매입하는 주택은 일반유형 100호이며 상반기에

임공고는 오는 6월 1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대구시 내 전용면적 26-85㎡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며 입지여건, 주택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금액 등 공사사 제시한 매입조건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계약 체결한다.

경북교육청, 장애학생 자격증 지원...1억2000만 투입

장애 학생 꿈 키움 자격증 지원 사업 고등학교 장애 학생 247명 선정 지원

경북교육청이 '장애 학생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참여한 고등학교 247명을 선정,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2024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고교 과정 학생들의 직업 실기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직업 실기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동기 부여와 함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취업에 유리한 바리스타, 제과 제빵, 워드, 운전 면허, 정보 기술자격, 미용 분야 등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고 취업에 꼭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원 수강, 교재 구매, 시험 전형료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펫푸드마스터, 반려동물 관리사, 목공예, 한지공예 초급지도사 등의 분야에서 2022년에 84명, 2023년에 159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을 줬다.

올해는 학교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올해 학생들이 지원한 분야는 바리스타 103명, 컴퓨터 관련 36명, 수제정 음료 지도사 25명, 제과제빵 23명, 펫푸드 자격증 19명, 운전면허증(지게차 운전 포함) 10명, 공예 관련 9명, 정리 수납·요리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22명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 희망하는 직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칠곡군, 중증정신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너나들이' 운영
칠곡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2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너나들이'를 운영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너나들이'는 사회활동의 제약이 많은 중증정신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들은 경주 일대 유적지 탐방 등 야외 활동을 통해 역사 정보도 알고 회원들간의 유대감도 증진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사진=칠곡군 제공)

경북도, "뎅기열 토착화 막아라"

경북 지역거점 예방 관리 재감염 경우 치명률 높아

경북도가 올해부터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국내 토착화 방지를 위해서다.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 사업은 기존 국립검역소에서 시행하는 검역단계 입국자 대상 뎅기열 조기발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뎅기열로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유기적인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국내 뎅기열 총 유입 환자 수가 206명으로 2022년(103명) 대비 2배 증가했다.

늘어난 해외여행으로 뎅기열의 국내 유입 위험과 날씨에 따른 뎅기열 매개 모기의 토착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는 4개 시·군(포항시 남구·북구,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보건소)에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

리 사업 보건소를 지정, △뎅기열 예방 홍보 △뎅기열 의심자 진료·진단검사 △뎅기열 환자 치료 연계 △주변 모기 방제 시행 등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 줄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 잠복기를 지난 후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발진, 안와통증,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치사율이 약 5%지만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재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악화해 치명률이 높다. 아직 효과적인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 물림 방지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뎅기열 감염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전 예방수칙 등을 확인 후 모기에게 물리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방문 후 고열, 발진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역거점 보건소에 즉시 방문해 조기진단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상주시, 인구감소 대응 살기 좋은 도시 건설

저출생 극복 TF 구성 발대식 전방위적 대응 전략 적극추진

상주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 정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초저출생 위기 시대에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시는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지난달 6일 정성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저출생 정책 총괄, 신혼주거, 임신·출산, 보육·교육, 일·생

활균형 개선 5개 분야 12개팀의 대책반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TF를 발족했다.

보고회는 저출생 극복 TF 단장인 정성원 부시장을 주제로 담당 부서장과 팀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분야별 과제(안전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대 분야 72개)를 검토, 연계 가능한 과제에 대해 대응책을 공유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굴한 주요 시책은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 활력타운 조성 △상주시 이차전지 U시티 프로젝트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24시 연장 운영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임신 전·후 풍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 총 37건이다.

발굴된 사업은 추가 검토 및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청년·결혼·출산·안전 돌봄 단계별 시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 대응은 물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상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니 채용박람회

어울림 일자리 한마당 잔치 다양한 일자리... 기회 제공



경산시가 6일 휴플러스 경산점 앞 광장에서 미니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2024년 새일센터와 일자리 기관이 함께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플러스' 사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경산맘카페인 '경산맘들 모여라'가 주최하는 '경산맘프리마켓&업마아이버룩시

장 축제'에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다.

올해 20회를 맞는 '경산맘프리마켓&업마아이버룩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행사 수익금 전액은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채용박람회는 4개 관으로 나눠서 운영됐다. 운영지원관은 일자리 기관별 사업 홍보, 구인·구직 상담, 구직신청서 접수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기업채용관에서는 11개 기업의 현장 면접 및 채용대행이 이뤄졌다.

취·창업 정보관에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니어 인턴 등 다부처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지원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관에서는 행사장을 찾은 분들이 소중한 추억의 장이 되도록 페이스 페인팅과 아로마향

으로 현재 자신의 감정을 알아보는 아로마 감정 테라피 체험의 장을 마련해 운영했다.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주관해 현장 면접은 물론 채용 대행 서비스, 경력 단절 예방 캠페인 홍보,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 제공 등 행사를 계획·운영했다.

태새일센터와 협력해 대구·경북 지역의 여성 취·창업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향숙 사회복지과장은 "여성 구직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한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대구은행 3층(중앙로 85) 고공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 매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임신·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영은 기자

상주시 영상산업 지역 경제 문화발전 한 몫

영상산업 발전 양해각서 영상산업에서 길을 찾아



상주시가 (주)엔피오엔터테인먼트-경북도와 손잡고 영상산업 발전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지난 5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영상산업을 통한 새로운 지역 발전방안을 상호협력한다.

체결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표종록 (주)엔피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처사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활한 영상제작 환경조성과 상호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뜻을 모았다.

(주)엔피오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배우 매니지먼트, 영화·드라마 제작을 함께 하고 있다.

제작에 참여한 작품으로는 MBC-웃소매 붉은 끝동(2021년), JTBC-기상청 사람들(2022), JTBC-김타일러(2023), NETFLIX-너의 시간 속으로(2023), tvN-정년이(2024, 예정)가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에서 영상 촬영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는 영상산업은 창작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산업으로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체 유치로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한국의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 웹툰 등 이른바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수익 모델이 등장하면서 뉴 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상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자 최근 다양한 작품을 성공적으로 제작 및 배급하고 있는 (주)엔피오엔터테인먼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표종록 (주)엔피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와 배경은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향후 제작하게 되는 영상 콘텐츠에 이러한 매력을 한껏 담아내고,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기회가 더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예천군-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1천만원 상호 기부

예천군과 영주시 축산과 및 지역축협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품앗이 기부에 나섰다.

예천군 축산과와 예천축협은 영주시 축산과와 영주축협과 함께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서로 품앗이를 기부한다.

8일 예천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영주시 정희수 축산과장, 영주축협 서병국 조합장, 예천군 박근호 축산과장, 예천축협 이정식 전

무 등 10여 명의 축협 임직원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참석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자체와 지역 축협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상호 교류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민식 예천축협 조합장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담겨 품으로 제공, 다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명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황오동에 꾸준한 나눔의 손길 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사후관리처는 지난 4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미리)를 방문해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약 140만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 14박스를 전

달했다.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는 지난 2017년부터 황오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과 봉

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기부를 시작으로 백미와 서늘레이터, 겨울이불 등 지역민들을 위한 꾸준한 물품 기탁을 이어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2024 경주벚꽃마라톤대회 2만명 운집 '축제장' 방불...

벚꽃비 맞으며 보문관광단지 달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희망

세계마라톤동호인 1만 2000여명 참가, 역사관광스포츠도시 경주 완주 경주시가 지난 6일 경주보문관광단지에서 열린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대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주시 주최 경주시체육회 주관 이번 대회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31개국 및 국내 동호인 등 1만 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풀코스(백산 △하프코스 △10km △5km 3종목만 열렸다.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 늦게 만개하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출전 선수와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 대회 참가자 모두 벚꽃비를 맞으며 천년고도 경주의 봄 향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출발 장소인 보문관광단지 일대에는 지역 봉사단체들이 준비한 국수 등 먹거리를 먹으며 출전을 기다렸다.

시는 안전하고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해 260

여명의 경찰, 공무원과 교통봉사대가 마라톤 코스 전 구간과 주요 진출입 도로 등 168곳을 통제하며 주정차 금지 및 우회도로를 안내했다.

500여명의 신라봉사단, 친절환경자씨, 자원봉사단, 풍물단 등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단체 및 동호인 부스 관리, 물품 보관, 먹거리 및 급수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응급구조사 10명과 구급차 10대를 2.5km마다 배치하고 대회본부에는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을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대회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기원을 하는 대회로서 경주가 꼭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참가자가 하나가 되어 가장 한국적인 세계문화도시,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지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참가자 모두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마라톤을 사랑하는 해외 및 전국의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대회를 최고의 멋진 대회로 치렀다"며 "천년고도 경주의 봄을 알리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의 열의를 담아 2025 APEC 정상회의가 꼭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밑그림 완성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최종 선정

경주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밑그림이 완성됐다.

시는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 설계 제안 공모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남경 건축사사무소(손성기, 대구)'와 '남경 건축사사무소(서동록, 성주)'가 공동 응모한 출품작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설계 공모는 2월 26~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

행했다. 총 6점의 제안서 심사를 통해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2점을 각각 선정했다.

당선작은 복합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변 공공보행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건축사에게는 설계용역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은 보상금 600만원, 가작에는 보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국토부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 전 과정을 경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시는 당선된 건축사사무소와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연말 건축공사 착공을 거쳐 내년 연말 준공한다.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472㎡ 규모로 1층에는 공동세탁소, 북카페, 커뮤니티실, 2층에는 회의실, 헬스장 등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유용숙 기업투자지원과장은 "복합문화센터가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내글내책-동화창작 참가자 모집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청소년 우선적 선발...



경주시는 8~23일까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학생들과의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글내책-동화창작 프로그램 참

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지역내 다문화가정 학생 및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5월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5회 차 교육으로 황오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한 이야기 도출과 글쓰기 및 삽화 그리기 교육이 병행될 예정인데, 총 5팀이 참여하게 된다.

팀당 1개의 동화를 제작하고 공연과 연계해 낭독극 워크숍도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식블로그와 공식소셜네트워크에 공지되어 있는 신청링크를 통해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식블로그를 참고하거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54-775-2598)와 운영사 태종기획(010-9989-5934)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경주 '황오랜드' 참가자 11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경주시가 오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경주문화관 1918에서 개최되는 '문화장터-플리마켓 - 황오랜드'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볼거리,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문화장터 및 플리마켓 △지역예술인 문화공연 △글로브볼 컬처부스 및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과 상인은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식블로그와 공식 소셜네트워크 공지의 신청링크를 통해 이달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024

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 접수는 8일부터 받는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하는 충전시설은 총 18대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서 신청일 이전 90일 이상 연속 경주에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다원코리아 전삼웅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다원코리아 전삼웅 대표가 지난 5일 영덕군청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삼웅 대표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군에 보내준 정성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이 뜻깊게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 제79회 식목일 행사 개최

울릉군의 가장 큰 부속 섬, 죽도에는 4월 초 현재 노란빛 유채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3250㎡(984평)의 유채꽃 물결이 울릉도(島) 섬의 능선과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이색적인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

군이 추진한 ‘죽도 유채꽃 조성사업’은 2002년을 첫 시작으로 매년 시행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 지난해 가을에 유채 씨앗을 파종(면적: 3,250㎡)하여 성공리에 개화했다.

죽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 44개 중 가장 큰 섬으로 대나무가 많아 죽(竹)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사면의 수직 절벽이 비경을 이룬다.



청도군, 임신·출산 행복교실 운영

청도군은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행복교실 1기를 지난 5일부터 주 1회씩 4회 실시한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전면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및 건강한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지식 제공 및 체험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

임신·출산 행복교실에서는 아기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애착인형 등을 만드는 손바느질 수업과 신생아 응급처치법, 유아 성교육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임신·출산 행복교실 2기는 오는 6월 실시한다. 신청 방법 및 문의는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370-2652, 2686)으로 하면 된다.



성주군, 오수수 모종심어...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발굴 힘써

2023년 1차 800m가 설치,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추가로 265m 설치가 완료됐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행자 데크는 지난 주말 벚꽃 만개로 많은 주민들이 찾아 새로운 벚꽃길 명소가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울진군이 근남면 노음리 수산교에서 성류굴 가는 길에 조성한 보행자 데크가 벚꽃 만개와 함께 봄기운을 느끼는 새로운 명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성류굴 길 보행자 데크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손병복 울진군수는 “성류굴 길 보행자 데크는 기존의 가로수 훼손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성류굴 벚꽃길이 데크 조성으로 그 명성을 더해 최고의 가로수 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2005년생 청년! 공연·전시 보러 갈래?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예술 향유 기회 제공...

청도군이 올해부터 19세 청년들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해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순수예술 관람비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2005년생 청년 78명이 선착순으로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됐다.

소득과 관계없이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05년생 청년이 해당된다.

발급 자격 확인 후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 상품권으로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력에매체(인터파크, 예스24) 중 한 곳을 선택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연극, 뮤지컬, 발레, 무용, 국악 등 공연 전시 티켓 구입 시 사용 가능하고, 대중가수 콘서트, 팬미팅, 페스티벌, 강연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 첫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이 직접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 적극 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일시적 보호가정 3가구 지정 앞장

울릉군이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지난 5일 울릉군청소년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는데 관내 초·중·고생 32명과 청소년 지도사,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짜여졌다.

참여위원회는 지자체 청소년 정책수립 및 청소년 사업과 관련,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기구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한다.

청소년 참여의식을 확대, 청소년들의 욕구와의 견이 실제 운영과정에 반영·개선시키는 역할을 하

는 참여기구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다.

발대식에서 위촉장 수여와 연간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군수와의 간담회와 식목일을 맞아 한마음 회관 다목적홀 앞 화단에 백일홍, 비올라, 제라늄, 마가렛 등 봄을 알리는 봄꽃 1000그루 모종을 심어 환경보호와 식목일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의견을 내고 참여해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참여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군, 치매 조기 발견 인지 저하 예방

병곡면 건강마을 조성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영덕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난 달 18일부터 각 경로당에서 두 달간 마을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낙상 예방 체조교실, 정신건강증진교육, 치매검진 및 예방프로그램, 비즈공예교실 등이 포함돼 있다.

체조 수업에서는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력 강화운동을 선보이고 주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 우울 척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 자문과의 상담, 정신의료기관 진료까지 결

정한다. 병곡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2%로 적극적인 치매 발견 및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

역이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에서 치매 조기 발견 및 인지 자극 강화로 노인 인지 저하를 예방한다.

주민들의 제안으로 비즈공예수업을 운영하여 팔찌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공재용 건강관리과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마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병곡면 건강마을 정착을 위해 더 활발하게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주도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자연산 민물고기는 꼭 익혀서 드세요~”

청송군, 장내기생충조사사업 간흡충 등 기생충 무료검사...

청송군보건소 의료원은 8-26일까지 3주간 장내기생충질환 예방을 위한 간흡충(간디스토마) 등 장

내 기생충 11종에 대한 무료검사를 한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주방기구 사용으로 감염되며, 적은 수가 기생할 경우는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다.

하지만 수십 마리가 기생할 경우는 소화불량, 복통, 황달, 간 기능 저하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는

담석증, 담낭염, 담관암 등 합병증을 유발한다.

간흡충 무료검사는 가까운 보건지소나 보건소의료원 감염관리실로 방문등록 후 검사 가능하다.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주민은 치료제 지원 및 투약 3개월 후 재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청송군은 장내 기생충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을 자제하고 간흡충 예방 퇴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한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영양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공식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직원 폭력예방 교육”을 했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소정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대응 절차 및 예방 등을 교육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2차 피해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조, 고차원적 성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성과 조직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영양군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영양읍 새마을회,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8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원 30여 명은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36가구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다.

김동환 회장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평소에도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홀로 계신 독거노인 방문, 환경관련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하는 모범이 되는 단체로,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는 따뜻한 영양읍 만들기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권윤동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금강건설(주)
100만 원 장학금 기탁

금강건설(주)은 8일 100만 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영천시 조교동에 위치한 금강건설(주)(대표 김종현)은 2020년 설립된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영천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장학회 운영을 통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매각

영주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용·관리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온비드 누리집에서 개별 전자입찰로 매각한다.

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중고농기계 이용 촉진 및 임대 농기계 신기종 도입을 위해 이번 불용농기계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농기계는 농도형조성기, 퇴비살포기 등 총 20종 139대로 전자입찰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물품보관 장소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영주시 문수면 종릉로 516)이다.



김용연 대표, 의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용연 케이에스테크(주)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 원을 의성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용연 대표는 사곡면 명예명장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등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고향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의성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다"라며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준 김용연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의성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청량산김치,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실시

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김치 5kg 600박스(1,6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봉화청량산김치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봉화군과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 매년 봄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를 기부해왔다.

봉화청량산김치 농업회사법인(주)은 8일 봉화군 제2농공단지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김치 5kg 600박스(1,6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봉화청량산김치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봉화군과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 매년 봄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를 기부해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매년 사랑의 김치 나눔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 주시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행복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영주 와서 일주일 살아보세요 어떤지?

최대 6박 7일, 숙박·체험비 지원
숨은 명소와 맛까지 느껴 보자

영주시가 '2024 영주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8일부터 운영한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주일 살아보기'는 관광객들이 정해진 일정 없이 자유롭게 여행일정을 짜서 여행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영주지역의 거주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이웃 300명 이상 또는 블로그 이웃 300명 이상을 가지고 영주여행을 최소 3박, 최대 6박을 계획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영주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내 숙박업소 이용 △관광지 또는 체험 프로그램 총 5개소 이상 이용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매체 또는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여행후기와 홍보 콘텐츠 최소 3회 이상 게시하면 지원 조건은 충족된다.

지원금은 영주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다.

금액은 △숙박비 3만원(1인 1박) △체험비 2만원(1인 1일, 식비포함)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하며, 1인 추가 시마다 △숙박비 1만원 △체험비 5천원 추가 지원된다.

지원한도 금액은 1인 6박 기준 △숙박비 18만원 △체험비 12만원이다.

프로그램 참여 관련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관 관광개발단은 "이번 프로그램이 영주의 유명한 관광명소 외에 숨은 명소와 영주의 맛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영주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를 통해 영주가 머무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축산악취... 농가 지역주민 간 갈등 푼다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 회의
축산악취 개선 민관 상생 협력

영천시는 8일 금호읍 황정리 마을회관에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는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 관리 및 소통을 위한 상생기구로 행정, 생산자단체, 양돈농가, 액비유통조직, 주민대

표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협의체 회의는 2024년에는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서 축산 악취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 악취저감 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협의체의 주기적인 간담회, 선진농가 벤치마킹 및 현장 조사, 시설 점검,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역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실질적인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서로 협력 노력한다.

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공모사업인 '20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신청한다.

서명환(영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통기구인 지역협의체 회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대가야 신화극 '도둑맞은 새' 갈채

역사적 사실 사회 던진
메시지 잘 녹여든 작품



고령군이 마련한 대가야 신화극 '도둑맞은 새' 뮤지컬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작품은 고령군의 고분으로 들어가 해골 무사와 도굴꾼이 벌이는 소동을 다뤘다.

수레 서커스와 공중 서커스, 그림자극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초반 해골무사를 보고 긴장했던 아이들도, 어느덧 공연에 빠져들어 웃음을 터트렸다.

배우들은 무대와 관객석을 자유롭게 누비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마무리에 관객석으로 날아간 종

이비행기는 '도둑맞은 새'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배우들은 3번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2024 고령 대가야축제의 퍼레이드에 참가, 고령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배우들의 재치있는 몸짓과 다채로운 소품은 고령 대가야축제의 마무리를 풍성하게 장식했고, 고령 군민들은 적극적인 호응과 박수로 배우들과 함께했다.

공연의 심사위원을 맡은 이원태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군의 역사자원을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으로 재현했으며, 고령군의 1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결실을 맺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작품의 높은 성과를 이어나가 다양한 경로의 발전 가능성과 파생상품을 만들어내고, 국가단위로 홍보를 진행할 단계라고 조언했다.

명목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역시 내용은 물론 배우들의 혼신을 담은 연기가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공연이었다고 전했다.

배영백 기자

의성군, 2024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

영상으로 만나는
의성 색다른 매력



의성군은 새로운 시각에서 의성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2024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의 주제는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유 주제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재생시간 2~5분의 일반 영상과 15~60초의 짧

봉화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추진...

봉화군이 지난달 28~4월3일까지 5박 7일간 우수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선진농업국의 농업·유통·경영기술들을 체험 및 습득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해외연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래농업으로 알려진 스마트팜 기술 체험 및 습득을 연수 중점으로 계획됐다.

스마트팜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가 연수국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롤모델인 암스테르담 지역의 월드호티센터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의 화훼경매장으로 알려진 알스미어 화훼경매장과 수상농장 플로팅팜 및 네덜란드 농산물유통센터, 암스테르담 꽃시장 등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 및 유통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봉화군 관계자는 "스마트팜 농업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네덜란드 해외연수를 통해 우수농업인들이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정보수집과 더불어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 유통 등을 체험 및 습득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고령군, 16일간 2024 사회조사 실시

고령군과 경북도는 오는 18~5월 3일까지 16일간, 관내 624가구(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2024 경북도 및 고령군 사회조사를 한다.

도 및 주민의 생활여건과 사회경제적 지위, 복지수준 등을 파악,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한다.

1997년 이후 매년 실시되며 가구·가족, 교육, 안전, 교통, 환경 등 경상북도 공통항목과 주민의 행정관심도, 문화·체육·여가시설 이용도와 같은 우리군 특성항목까지 46여 개 질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발전방향제시의 기초자료가 된다.

조사는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경북도와 고령군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2025년 하반기에 확정 공표된다.

배영백 기자

성주군,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최고

성주군 대가면은 8일 대천1리 마을회관 앞 마당에서 '별고를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했다.

별고를 찾아가는 빨래방은 차량으로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이불, 커튼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대형빨래를 수거, 세탁 및 건조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겨울 이불 세탁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마을까지 직접 와서 세탁을 해주니 너무 편하고 좋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재훈 기자



2024 대구광역시일보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